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월 24일 (제108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진실과 거짓

어떤 성도가 "목사님,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요." 하며 억울하다는 듯 내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편에서 말할 수 없었다. 의사는 위모하는 자가 아니라 치료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아파도 고통을 짜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봐요, 이건 억울해할 일이 아니야. 그간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나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아야 할 문제야."라고 말해줬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일이다. 왜 안 믿어줄까? 그건 그동안 내가 진실과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쉽다. 양치기 소년은 혼자서 산에 올라 양을 지키려니 심심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다. 동네 사람들은 어린 것이 다칠 세라 놀라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그것은 말쭙 거짓말이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 누구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년이 소리를 질렀을 때도 '또 거짓말하는군.' 하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소년의 결국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나에게 있다.

거짓은 마치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점점 그것이 커져서 집도 덮치고 일궈놓은 밭도 망가뜨리는 것처럼, 작게 시작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이 되어 나를 덮치고, 내가 이뤘던 것을 다 덮치게 된다. 요즘 마스크를 보면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을 지어내다가 쇠고랑을 차거나 세상의 못매를 맞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지 않은가.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자.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되면 어딜 가나 떳떳하고 당당하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내 할 말을 다 일러주셨기에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요12:49~50). 그런데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갈릴리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그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장면은,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숭고하고 영광스런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눈 이시대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

에 들어가 목회하실 때에도, 누군가 현찰 300억을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시라 하는데도 이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셨다. 진정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목사님이라고 왜 쉽고 간편한 길을 모르실까. 이시대 목사님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신학교 학장 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그 밑에 들어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셨다. 세상이치대로라면 후배에게 밀려나면 그만 두라는 신호로 생각하고 떠나는 게 통상의 모습이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를 세우신 총회장 목사님



"우리는 지난 90년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림픽공원 각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요단강의 세례의식에 줄을 서서 요한 앞으로 나오시는 모습이 그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그대로 따르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종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라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천하에 공표하셨다(마3:16~17).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따르신 것이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순종은 두말할 것도 없

히 보여주셨다고 믿는다.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삶, 비록 손해 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짓밟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아닐까.

목사님은 철산리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이전하실 때 당장 내일 이사 가는 마당에 성전 바닥에 장판을 다 새로 깔고 깨끗이 단장을 하셨다고 들었다.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송의동으로 이전할 때도 떠나가는 마가다락방 앞의 도로에 아스팔트를 까는 등 마치 새로 입주하는 사람처럼 깨끗이 단장해주셨다고 한다. 올림픽공원

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셨다고 간증하셨다. 나의 세속적 명예나 나의 자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다. 그렇다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평탄대로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섰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목사님이 헤쳐 나온 36년 사역의 길,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섰던 길이지만 결코 순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그날에 받을 상 아닌가. **한은택 목사**

주일예배(1, 2체육관 총 600명 분산해서 참석)

◆1부(7시)예배: 강서지역전체 + 광명, 양천, 오류, 고척교구 참석

◆2부(10시)예배: 강남지역 나머지교구 + 교육부 참석 ◆3부(2시)예배: 강북지역 전체 참석

수요일예배(88체육관 사정으로 잠시 중단)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말3:6~12)

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

모든 문제는 '왜'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원인이 보이고,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잔소리를 하실 때 투덜거리지 말고 '왜 저러실까' 생각하면 '아! 나를 사랑해서, 나 잘되라고 저러시는 구나.'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해서 건강하자.'라는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냥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왜'라는 안경과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가 풀린다

왜? 성경 첫 장 첫 구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고후1:18).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어찌 '아니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구약을 통해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마침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을 주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요일3:8). 아담의 죄로 인해 마귀의 사슬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했기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자로 오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우리 삶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구나. 가난도, 다름도, 고통도 귀신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달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불꺼진 항구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적도, 강도도 몰래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치 않을까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살전5:17). 성경은 분명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방언은 악한 것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준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14:15).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 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포도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듯, 너희도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말입니다. '아! 내 삶이 죽었던 것은, 내 삶이 메말랐던 것은, 내 삶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다 된 겁니다. 절대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와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 밀려와도 예수님을 떠

나지 않으면 내 삶에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행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심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지만, 십일조만은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말3:10).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1~12)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될 듯 하다

가 안 된 것은, 자꾸 내 삶에 해충이 끼는 것은 내가 십일조를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십일조 노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장사를 해서 매일 매출이 나거든 십일조 봉투를 만들어 매일 넣으세요. 록펠러는 십일조만 계산하는 팀을 따로 꾸렸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뤄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한 시대의 맥을 갖는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당신의 친구라 할 정도로 신임하신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무조건 고향과 친척을 떠났고, 백세에 얻은 아들도 제물로 드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임금작취와 사기결혼 등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여 성공한 야곱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꿈을 가진 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살길을 마련해준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롬12:21). 입다를 통해서 환경에 굴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값을 것을 가르치셨고, 에스터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금식기도의 위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죄보다 회개와 중요함을, 한나를 통해 애통하는 기도의 위력을, 다니엘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됨을 알게 하셨고(히9:27),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임을 말씀하셨습니다(요14:6).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이야기를 통해(막2) 예수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히10:39), 급난지봉(急難之朋), 곧 힘들고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고전10:11)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사34:16). 그러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왜',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용달샘 ::

시험 극복의 비결

“왜 시험에 드는지 알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마26:41)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는 쉬우나 정작 시험에 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듣기 싫다. 맘이 상해버렸으니 기도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꼴 보기 싫어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선부터 아프로치는 오히려 독이 되기 쉽다. 잠언에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을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잠25:20)고 가르치지 않는가. 또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18:14)고 그 어려움을 토로한다. 본인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다 깨달음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시험을 이렇게 이긴다. 물론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도가 부족하여 악한 것이 시비를 거는지 한마디로 그럴 꺼리가 생긴다. 살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를 터득한 방법은, 아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이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다. 내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아시는 내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며 보상하여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 무엇이 있어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보완해주시려고 나에게 시

험을 내셨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은 그날에 갚아주시거나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넉넉히 보상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대인관계에 있어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는가. 확 쏘아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응징하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억울하여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사람인지만, 감정의 동물인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나 감정과 기분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 힘들어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며 계산하고 그러기에는 내 지혜도 부족하거나 그걸 에너지도 없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힘이 무엇인가? 그날에 보상하여줄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전투구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또 그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억울하고 부족하고 상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적당한 때에 넉넉히 채워주시심을 믿는다. 이 땅이 아니라도 그날에는 반드시 보상하여주시심을 믿는다. 내가 시험을 극복하는 작은 비결이다.

Henry Han

:: 신앙논객 ::

문제인식이 출발점이다

올해 우리 교단의 슬로건은 “이대론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이다. ‘이대론 안 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정말 무식한 사람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처럼,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적과 싸워야 했다.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와 기도처들이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악한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새해 슬로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 문일까? 많이 해이해진 느낌이다. 대학 부에서 청년대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자

신의 상황이나 진로 때문에 주의 일을 좀 쉬어야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예배와 기도시간까지 타협하려는 친구들도 종종 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누구는 강하게 혼을 내고 누구는 타이르고 하지만,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마6:33)! 나 역시 청년 시절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더러는 당장 눈앞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교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식이다. 그러면 결국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당부한다. “크리스천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도 잘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즉 그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말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렇듯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지금 나의 마음가짐은 괜찮은가?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인식이 곧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이다.

신혁주 전도사

기독교의 역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23:12),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9).

하나님은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쫓겨 운택해진다고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역설(逆說)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과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들의 생각과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설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옳고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역

행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지라 남보다 높아져야 복이고, 남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행복하고, 이웃이 굶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 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의 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버리면 가족이, 이웃이, 세계가 보입니다. 나를 버리면 사랑과 배려와 용서가 솟아납니다.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진리입니다. 그 역설을 모순이라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안에 구원과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



:: 소망의 언덕 ::

그립습니다

우~~웅 우~~웅... 또 그 집사님이셨다. “목사님, 저희 언제 교회에 갈 수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예배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진행되니 걸려온 문의전화도. 종교당부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이 정도이니 다른 곳의 상황은 더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꿈을 통해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

꿈에서 아내가 이시대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내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좀(화상모임)으로라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라고 여쭙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시대 목사님께서서는 이전에 보여준 적 없으신 슬픔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낯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어릴 적 엄마를 잃은 너는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 슬펐지? 엄마를 직접 만나서 보고 싶은 너의 마음처럼 나도 성도들의 얼굴이 직접 보고 싶구나.”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번뜩 깨달았다. ‘아!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을까. 아무리 서울교회 교역

자들과 성도들이 이시대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한들 목사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과 감히 비할 수 있을까. 하물며 수많은 영혼을 해산의 수고로 낳고 기르신 총회장 목사님은 어떠하실까.’

평생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가르쳐주셨던 목사님이셨다. 또한 언제나 당신 스스로가 최전선에 앞장서서서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오셨다. 그런 목사님께서 오히려 “지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혜롭게 잠시 대면모임을 갖지 말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자.”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이때에 모두 정신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외치시는 목사님, 불같은 사자후로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곤 뒤돌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모세처럼 기도하실 목사님을 떠올리니 마음이 미어진다.

다행히 이 글을 쓸 무렵 제한적 대면예배가 허용되었다. 때가 되매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그저 감사드릴 뿐이다.

이현승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올림 있는 삶 ::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이

겨울바다에서 험한 파도와 싸우며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마구로(참치)를 잡는 잇폰즈리(一本釣り) 바다의 사나이를 주제로 한 연말특집이 TV에서 방영되고 있었다. 손으로 선을 당겨 올리는데 200kg 가까운 엄청난 크기의 참치였다. 연말 대청소를 하다가도 꼭 빠져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꼭 잡고 응원하고 있었다.

65세의 아버지와 학교를 졸업한지 몇 년 안 된 아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며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참치잡이 어부가 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대했다. 아들 만큼은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는 험한 바다에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고생하며 엄마도 없이 혼자 키웠는데 막상 아들이 아버지처럼 잇폰즈리(一本釣り) 참치잡이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 가슴이 시린 모양이다. 잇폰즈리(一本釣り)란 막 잡은

신선한 오징어 같은 것을 먹잇감으로 바다에 던져 참치가 걸리면 손 반 기계 반으로 줄을 당기다가 어느 정도까지 오면 전기 슛커를 내려 참치를 잠깐 기절시키고 그 사이에 배로 끌어 올려서 잡는 옛 방식이다. 최첨단도 아닌 잇폰즈리(一本釣り)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 아버지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주 큰 참치가 걸렸다. 혼자서 끌어 올리려 하지만 참치는 반항을 하고 더구나 전기 슛커가 고장 나서 기절을 못시켜 생으로 올려야했다. 혼자 악전고투하는데 마침 아들이 탄 배가 지나다가 이를 보고 아버지 배로 건너왔다. 그리고는 그동안 배운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배로 올렸다. 아들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운 참치로 연화 2백만 엔(한화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들은 자신의 배로

돌아갔다. 떨어져가는 아들과 아들이 탄 배를 목이 비틀어지도록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아들을 인정하듯 웃고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축축한 것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다. 나는 이 방송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활 속의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처럼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추수 때에 얼음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잠25:13)'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새해에도 우리를 위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꾸며 소망합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From Internet ::

어머니와 대학교수 딸

<23세에 혼자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밖으로 새어 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히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누구든 자기의 수준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비누는 자기 살을 녹여 상대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그건 비누가 아닙니다.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참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녹는 비누인가, 녹아 사라진 소금인가?' 생각해봅시다.

:: 생활 속의 잠언 ::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희망을 앗아가는 부정적인 존재로 우리의 한해를 통째로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잃음의 자리 다음에는 새로운 일의 시작이 있고, 절망 뒤에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했던 유학원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덕분에 업무를 종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20년 이상 훈련받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밤을 새웠고, 통곡으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의 기도 끝에 주님께서 정말 좋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사십여 년의 서울살이를 청산했고, 지금은 경주 안강이라는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일을 시작하여 버림 뒤에 찾아온 다른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보냈던 시간 동안 얻게 된 것

한 가지는 '나'를 온전히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내 생각과 의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두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몰라서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있을 때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히고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고백하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한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끈고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순간마다 찾아드는 인간의 생각과 계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해의 모토를 새롭게 세워봅니다. 이전과 달리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비우는 일입니다. 버리고 비운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나의 품성과 성향과 인격에 맞는 소중한 일거리를 주시고 코로나 19의 위협과는 상관 없는 평강으로 다스려주시기를 믿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은 요즘 인기 있는 스테디캐피입니다. 예전 학원업과 달리 100% 전산화되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날로그와 인공 지능의 간극 사이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지만, 그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주어진 시간을 그동안 바빠 산다고 뒤로 팽개쳤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시골산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오픈배를 드려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자유 집사

경영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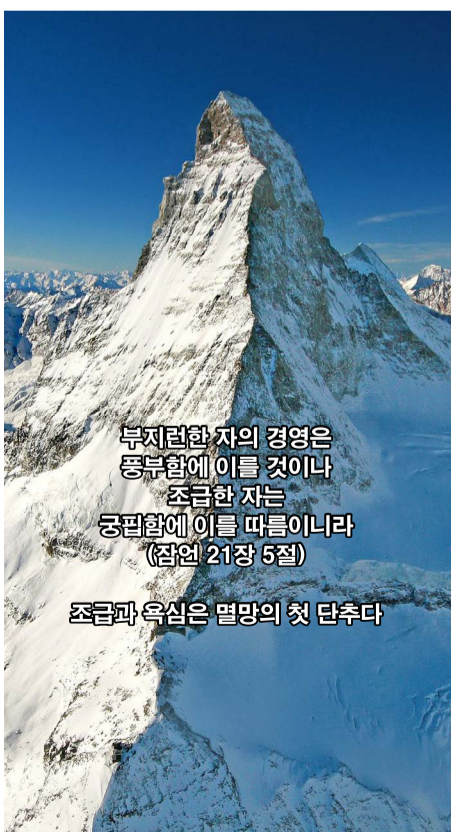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시장이 점차 커지던 지난 4월, 나는 배달전문 식당을 하나 더 오픈했다. 많이 벌면서 수입은 얼마가 다 가져간다면 소박함이 묻어나는 투정을 하는 딸아이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주며 가게 수익과 지출 고장비, 원가계산까지 모두 일임을 시켜주었다. 신이 난 딸아이는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며 시장 조사를 했고, 매출대비 이윤이 작다며 이윤창출의 딜레마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배달 독과점 시장과 수수료 등 배달앱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한 딸과 나는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며 이윤추구들과구를 모색했다.

한때 딸아이는 또래 아이들은 대학 다니며 스펙 쌓기에 바쁘게 자신은 배달이나 하고 있다며 비관에 빠지기도 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나이인데.' 하며 안쓰러워했다. 그즈음 이시대 목사님이 가게에 오셔서 예배 중에 휴학하고 있던 딸에게 "대학이 중요하니?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도 대학 안 나오기도 성공했다. 착실히 배워서 경영자가 되라."며 큰 위안과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었다.

나는 배달, 포장, 서빙, 설거지, 고객응대 등 일인다역을 하는 딸에게 늘 주입시킨다. "모든 경험은 귀중한 기념품이며 값진 재산이다.", "네 또래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3D 업종을 이겨내고 꼭 월급 주는 자가 되어라. 일머리가 명석한 년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가 있다. "너는 사랑을 책으로 배웠구나." 하는 말이다.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경영도 책으로 배운 것보다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부딪치며 경험하는 것이 산교육이다. 목사님 말씀대로 경험이 최대 자산이고, 최고의 공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작은 배달 식당을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으로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성숙 집사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을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이룰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조급과 욕심은 멸망의 첫 단추다